



## 물과 함께……

김영하 ((주)건화엔지니어링 부회장, 수자원개발기술사)

**나** 나의 이름자에 물 하(河) 자가 들어 있어 그런지는 몰라도 평생동안 물과 인연을 맺고 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당시 민간 전력회사인 화일전력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의암댐 설계, 시공에 참여하면서 물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물과 같이 살고 있고 물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물은 조물주가 만든 걸작중의 걸작임에 틀림이 없다.

그 신비와 오묘함은 생각하면 할수록 물이라는 물질에 매력을 느끼게 한다. 우리가 통상 물을 접하면서 잊고 살지만 상온에서 3가지 형태(수증기, 물, 얼음)로 변하고, 얼음이 물보다 부피가 크고 가볍다는 사실, 적당한 표면장력에 의한 모세관 현상, 적당한 점성, 용해력 등으로 말미암아 물의 순환이 일어나고, 호소나 바다에서 생명체가 살아갈수 있게 하고, 모든 생물의 원동력인 영양분을 운반하는 등, 이 지구상에서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그 생명체의 원천을 물에 두고 있고, 어떠한 미세한 미생물이라도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물은 그리이스 자연철학의 시조인 탈레스는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 라고 하였고 자연의 이치를 물로서 설명하였던 것이다.

또한 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정서와 생활 환경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다하여 왔다. 고대 로마 시대의 각종 수경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도시미관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생활환경을 구성하였으며, 우리 조상들은 형이상학적 의미를 부여하여 물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추구하였다. 또한 풍류가 있는 곳에 반드시 물이 있었고 우리 조상들의 정신 문화를 지배해온 음양오행이나 풍수사상에서도

물을 으뜸으로 생각하리 만큼 정서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자원보다도 소중한 자원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자원과 평생동안 가까이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인류 문명의 역사도 물과 같이 시작되었고 물과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 역시 물과 평생을 같이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990년 한강 대홍수였다. 당시 다목적댐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때다. 그해 유난히 강우량이 많아 소양강댐 수문을 3번이나 열어 수량을 조절방류한 해였다. 소양강댐은 연평균 유입량보다 저수용량이 큰댐으로 댐 준공이래 10년간이나 수문을 열지 않아 너무 댐을 크게 만들었다고 전문가들의 입에까지 오르내리기도 한 댐을 일년에 3번씩이나 수문을 열었으니 그해 강우가 얼마나 많았던가 짐작이 될 것이다.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소양강댐, 충주댐 등 한강유역의 대표적인 2개의 댐이 거의 만수위 상태에서 홍수기가 끝나가는 9월 9일부터 4일간에 걸쳐 중부지방을 강타한 때아닌 집중호우로 인하여 한강유역은 물난리로 아비규환, 생지옥의 상태로 몰아갔다.

3일째 밤을 꼬박새운 9월 12일 밤의 일이다. 소양강댐 수위는 계속 상승하여 계획홍수위에 육박하는데 비는 멈추질 않고 충주댐은 이미 계획홍수위를 넘어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유입량은 줄어들지 않고 댐하류인 충주시는 이미 절반이 물속에 들어갔으며 여주지역은 하천제방이 월류붕괴 직전에 있고, 수도권은 일산제방이 붕괴되었고, 한강 인도교 수위

는 11m를 넘어 저지대는 이미 침수가 돼 버렸고 하천제방마저 위협상태에 있어 초비상 경계상태에서 댐 상류는 상류대로 단양 및 매포가 침수되고 인제는 물속에 절반이나 잠겼다고 통보가 되는 등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들이었다.

저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이순간 방재 상황실에서 “우리 여러분들 하느님에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 합시다.” 라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호랑이에게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긴호흡을 들이킨 뒤 정신을 가다듬고 소양강댐은 사력댐이므로 계획홍수위 이상 수위를 올리지 않아야 하고, 충주댐은 콘크리트댐이므로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댐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니 하류 홍수조절을 위해 최대한 조절한다는 전제아래 홍수량 분석과 예측을 거듭하여 중앙재해대책 본부와 긴밀한 협조아래 아찔한 순간들을 넘기면서 최선을 다해 90년 대홍수를 치루게 되었다.

그러나, 충주댐 수위가 계획홍수위보다 1.0 m나 초과 운영되므로 해서 상류의 단양, 매포지역이 침수되어 피해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하였으며 “서울을 살리기 위하여 충북을 수장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군수가 구타당하고 도지사가 바뀌고 국회건설위가 수해지역 조사를 하게되고 각종언론들은 홍수조절 잘못은 “인재” 다 라고 연일 대서 특필하게 되는 등 홍수를 겪은 후 뒷처리 또한 홍수조절보다 더 어려운 시련을 겪었다.

단양군청에서 피해주민들에게 불잡혀 꼬박 하루를 지냈는가 하면 수백명의 농성주민이 대전 한국수자원공사까지 찾아와 회사를 점거농성 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으며 떡살을 잡힌채 주민들에 휩싸여 밤을 지새운 일도 여러번 있었다.

피해주민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호소, 납득도 시키고 어려움을 같이 하면서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여 이 뒷처리를 하는데에 1년이나 소요되었다.

다행히도 홍수발생 직후 한국수자원학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홍수조절 특별조사단이 구성되어 홍수조절 실상을 조사하게 되었고 국회에 특별보고까지 하였다.

이때 조사단은 1000년 빈도에 가까운 홍수를 한

강유역의 2개 다목적댐으로 효율적인 연계운영에 최선을 다한 댐운영이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또한 홍수발생 1년이 지난 후 단양, 매포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감사패를 만들어 주민대표가 전달해왔다.

단양, 매포 주민들은 침수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주민 스스로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당시 김 선구, 이 회승 본부장의 도움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90년 대홍수는 저에게 담배를 끊게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홍수기간 동안의 초조와 불안, 홍수후 뒷처리등 어려웠던 시간들을 견디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담배를 피웠던지 이후 기관지가 약해져 그해 추석부터 30년간 피우던 담배를 끊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피우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물이 나에게 준 은혜요 감사가 아니겠는가 적어도 물과 함께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홍수를 접한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며 이 홍수 또한 주역으로 무난히 주어진 의무를 다한 보람 또한 내가 살아가는데 큰 추억이라고나 할까!

물은 신비적, 철학적 사상 내지 신앙의 대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활철학 내지 윤리로서의 수행의 대상으로 자주 비유 되기도 하였다.

노자나 맹자께서도 물은 생활철학의 윤리로서 비유한적이 있지만 여러 선인들이 물의 미덕을 노래한 구절이 마음에 들어 글을 잘쓰시는 서예가에 부탁하여 글씨를 받아 액자를 만들어 거실에 걸어 놓고 아침 저녁 이를 보면서 물의 의미를 새삼 느끼면서 물과 같은 생활철학으로 살아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

### “ 물 ”

어떤 그릇에나 담기는 융통성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겸손  
 막히면 돌아갈줄 아는 지혜  
 바위도 뚫는 물방울의 인내와 끈기  
 구정물도 받아 주는 포용력  
 흐르고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